

IV 초광역개발권



초광역개발권의 비전과 전략



초광역개발권 발전정책은 글로벌시대를 대비하는 중장기 개방형 국토발전전략으로서 대외적으로 동북아시아 및 통일에 대비한 미래형 국토전략이며 대내적으로는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에 기반을 둔 지역 간 상생발전전략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 초국경적 협력 개발 기반 구축, 광역경제권 간 기능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신성장축 구현, 하천·산맥 등을 활용하는 국토의 녹색성장 잠재력 극대화 등을 목표로 추구한다.

초광역개발권 개방형 4대벨트와 내륙특화벨트

초광역개발권은 대외개방형 4대벨트와 내륙특화벨트로 설정한다.
우선 동·서·남 해안권과 접경지역을 대외개방형 4대 초광역
개발권으로 설정하여 유라시아와 한태평양을 지향하는 정(井)자형
국토개발축을 제시한다. 또한 4대 초광역개발권과 연계하여 내륙권의
산업·특화자원 등의 초광역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륙특화벨트를

- 2010년 상반기 중 지정할 계획이다.

초광역개발권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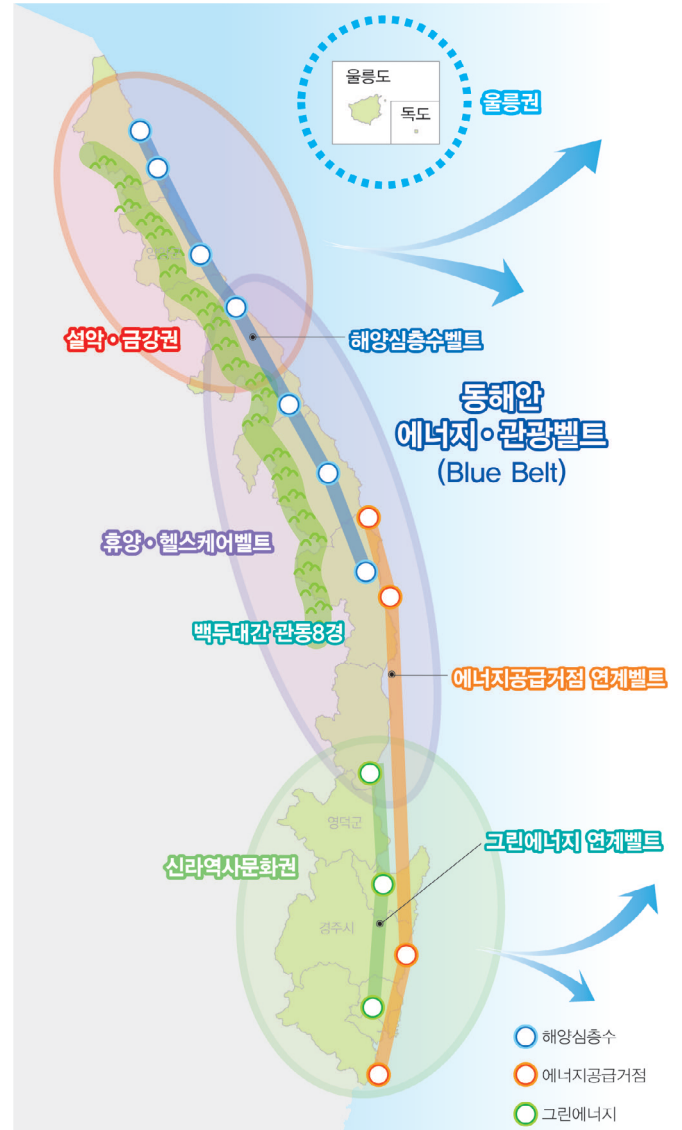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 인프라 확충 및 환동해권 교류협력 강화



▶ 국제관광 거점 기반조성 및 창조산업 육성



에너지·관광분야에 초점을 둔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는 에너지 공급 기반시설 확충, LNG 기지 건설 등 국가 에너지 공급 안정화와 연료전지·풍력 등 차세대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설악~금강권의 자연환경과 경주권의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국제적 관광거점도 함께 조성된다. 포항~경주~울산을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산업경제권이 구축되고, 양성자가속기 및 방사광가속기에 의한 원천기술기반을 활용하여 신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도 높게 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간교통망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남해안 선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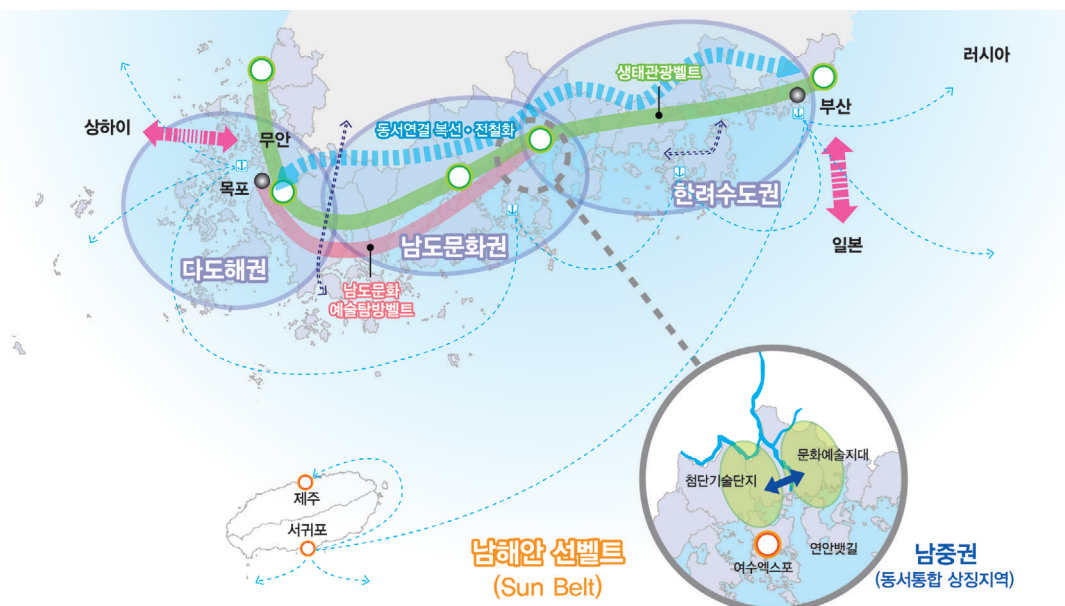
▶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으로 육성



남해안 선벨트는 동북아 경제·물류거점과 세계적인 해양관광·휴양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토 남부의 신성장지대 조성을 추진한다.
조선, 석유화학, 기계, 항공우주 등 이미 집적된 기간산업을 초광역적인
협력을 통해서 고부가가치의 미래 신성장산업을 창출하고, 부산·광양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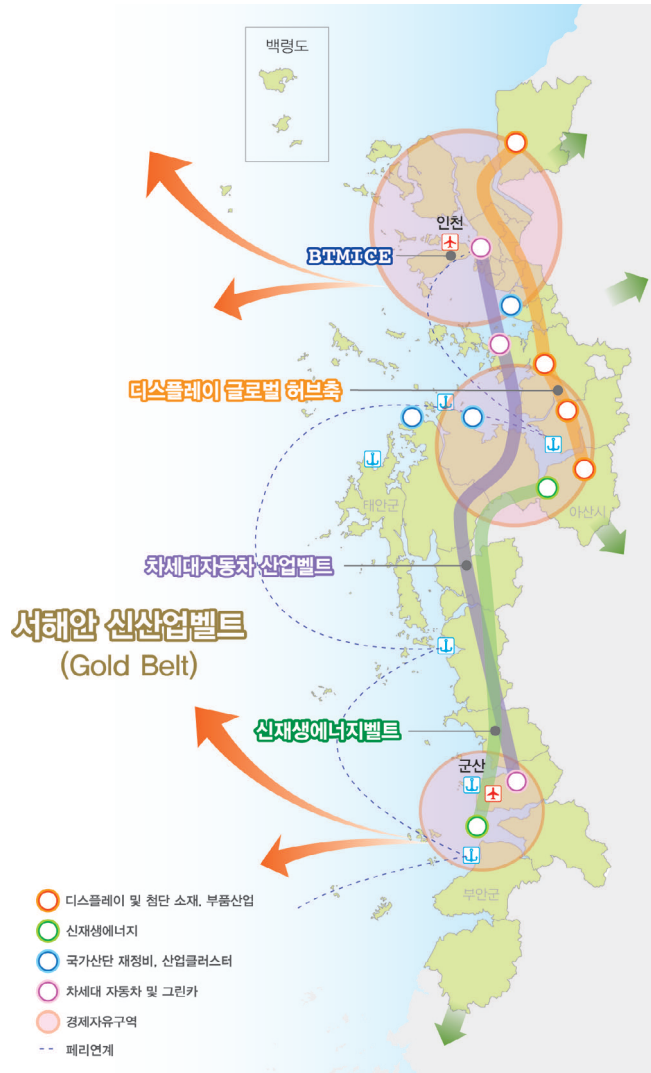
동북아 물류중심 향만으로 육성한다. 한려수도권·다도해권·남도문화권 등 주요 거점별로 체류형 휴양·위락단지를 개발하고 요트 등 해양레포츠와 국제 크루즈를 위한 인프라도 조성한다. 특히 남중권은 섬진강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지대를 조성하여 동서통합의 상징지대로 개발된다. 남해안 선벨트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남해안 일주 철도가 복선·전철화되고, 내륙연계 고속도로 건설로 통합 교통 인프라도 구축된다.

▶ 세계적 해양 관광·휴양 지대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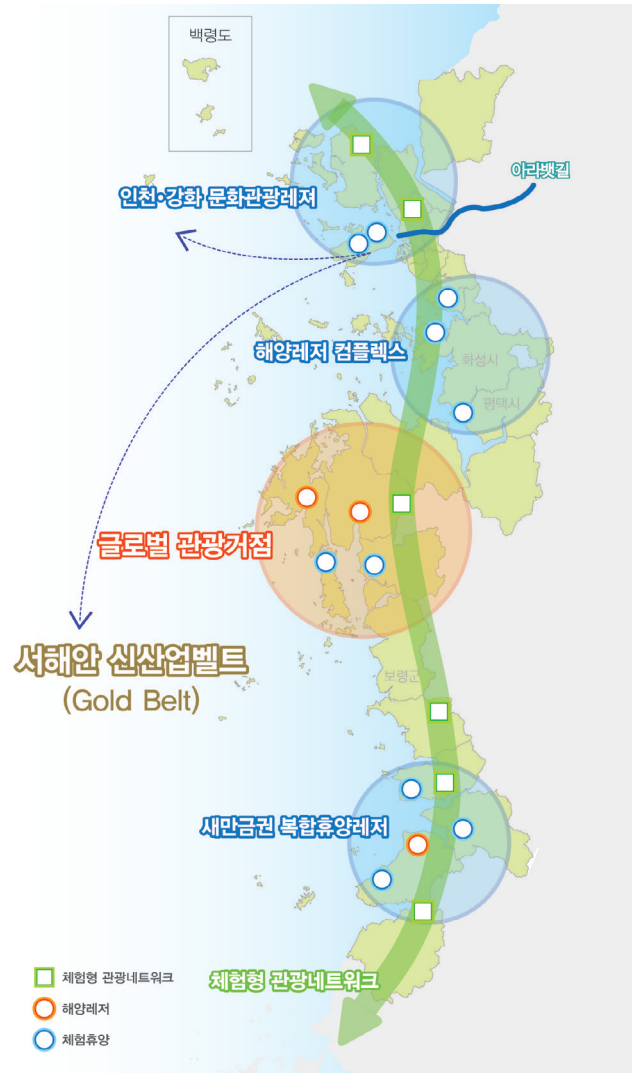


서해안 신산업벨트

▶ 경쟁력 있는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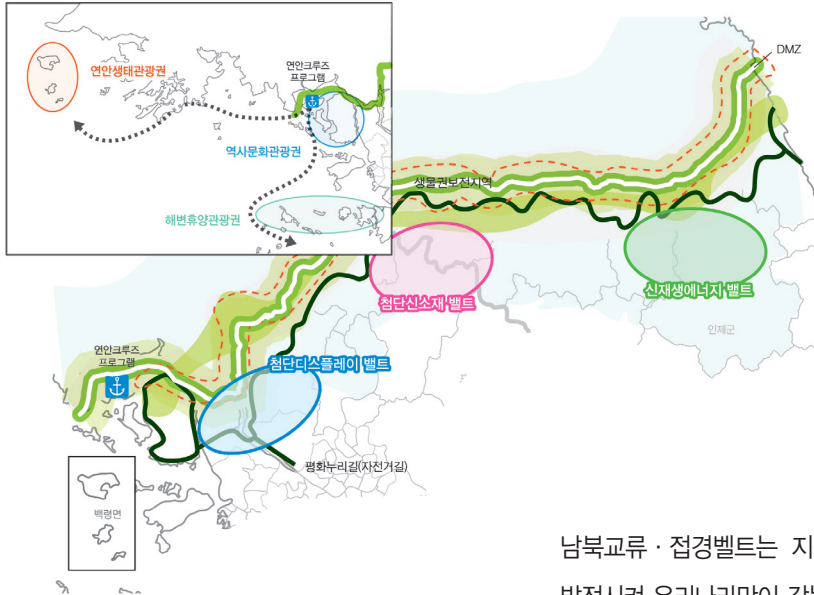
▶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서해안 신산업벨트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 조성에 초점을 둔다. 3개의 경제자유구역(인천, 황해, 새만금)을 활성화하고 이와 연계된 국제비즈니스 핵심거점을 육성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스플레이 산업의 허브를 구축하고 수도권~충남~전북을 잇는 주력 산업과 IT산업 간의 융복합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산업과 식품산업벨트도 함께 조성된다. 서해갯벌 등 생태 및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는 글로벌 관광거점이 조성되며, 새만금권에는 명품 해양레저도시가 만들어진다. 서해안 신산업벨트의 기반시설은 인천, 평택·당진, 군산·새만금 등 주요 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도로·철도망과 연안 초고속 페리 운영 등을 통해 확충된다.

남북교류·접경벨트

▶ DMZ 생태관광벨트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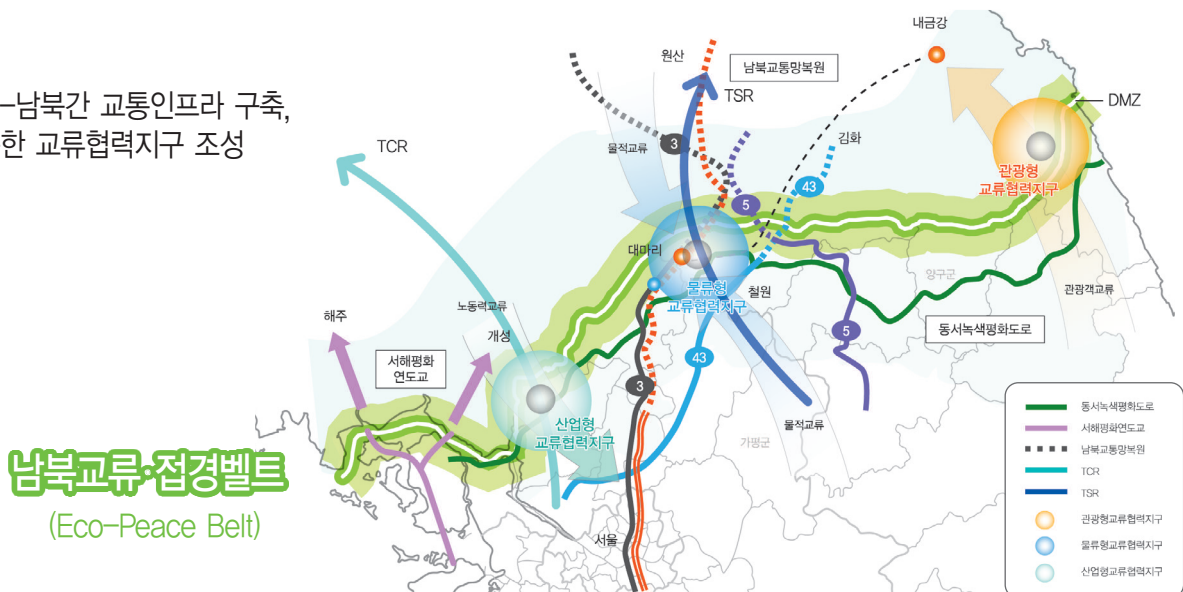


남북교류·접경벨트 (Eco-Peace Belt)

남북교류·접경벨트는 지정학적 위상, 생태의 보고 및 평화의 가치를 발전시켜 우리나라만이 갖는 세계적인 생태·평화의 상징공간을 조성한다.

DMZ 생태관광벨트는 희귀생태자원과 문화유산 등을 국내외 협력을 통해 세계 공동의 자산으로 활용하고, 강화~고성 간 민통선 지역을 평화누리길(자전거길)로 연결하는 등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한다. 판문점을 중심으로 UN평화회의장 유치 및 생태·평화·인권·분쟁해결 국제전문가를 양성하는 UN평화대학 설립 등을 통해 평화상징공간도 조성한다. 장기적으로는 단절된 기간교통망을 연결하는 동서 녹색평화도로, 남북 단절 철도·도로 복원 및 TCR·TSR과의 연계, 서해 평화연도교 건설 등을 통해 기반시설도 확충될 계획이다.

▶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남북한 교류협력지구 조성



남북교류·접경벨트 (Eco-Peace Belt)